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이상경**

차 례

1. 북한문학에서 여성문학의 가능성
2. 북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해방과 억압 사이
3. 해방 직후의 남녀평등법령과 자율적 여성 주체
4. 건설기의 혁신적 노동자로서 여성의 참여와 동원
5. 혁신적 노동자이자 혁명의 어머니인 여성의 이중 부담
6.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의 새로운 의식
7. 맺음말

본 연구는 북한의 각 시기 여성정책이 여성에게 요구한 것과 그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북한여성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북한의 공식적 여성 정책이 북한 여성의 생활현실과 같등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분석했다. 해방 직후의 작품에는 일제하 여성 문학의 전통을 잇는 측면과 해방 후 북한 사회에서 새롭게 전개될 변화한 여성의 삶의 조건에서 야기되는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A00397).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데, ‘남녀평등권법령’으로 상징되는 제도적 해방이 여성에게 가져다 준 진보와 환희를 포착하면서, 동시에 봉건적 유습이 아직 강고하게 삶 속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제도가 일상의 삶에 적용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6·25 전쟁 이후 전후 건설의 시기 및 60년대의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본격적으로 생산 현장에 뛰어든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로서 생산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비하, 여성들의 자기 비하, 관료주의 등이 비판적으로 성찰된다. 1970년대 이후 혁신적 노동자이자 혁명적 어머니이기를 요구받으면서 여성들은 직장일과 집안 일을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되고 그 틈새를 모색하는 여성들의 노력이 여성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언제나 여성 개인의 헌신적 노력이 강조된 것에 비하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는 여성의 저야 하는 이중 부담의 고통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식을 담은 소설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어 : 해방과 동원, 북한 여성작가, 『조선여성』, 『조선문학』, 남녀평등권법령, ‘고난의 행군’, 임순득, 이정숙, 강복례, 리라순, 최련

1. 북한문학에서 여성문학의 가능성

이 연구는 북한의 각 시기 여성정책이 여성에게 요구한 것과 그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북한여성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북한의 여성 정책이 실제 북한 여성의 생활현실과 같등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녀평등권 법령’(1946)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공식적인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이라는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여성의 삶에서 이것은 여성이 생산 노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해방이지만 여성의 노동력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면 억압이 되는 이중적 측면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노동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던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방의 의미를 가지지만, 의식의 측면이나 물질 조건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던 가사 노동에 더해 새롭게 사회적 노동의 부담까지 여성이 지게 되는 것으로 오히려 억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미묘한 측면이 북한여성들 자신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여성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개 정치학 혹은 사회학 쪽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령이나 연설 등 공식적인 자료에 일차적으로 주목하거나¹⁾, 아니면 일부 특수한 경험을 가진 탈북자나 방북자의 경험담을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²⁾ 실제 북한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들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여성문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여성의 삶의 내밀한 측면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도 여전히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사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리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언표되는 상황에서 그 미묘한 갈등의 현장을 포착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설 문학의 꼼꼼한 읽기를 통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소설 역시 북한의 문예 정책 안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되기는 하지만, 소설 장르의 특성상 여러 인물의 목소리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현장을 담게 되고 그곳에는 공식적인 말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목소리가

1) 한국여성개발원, 『북한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안종철,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9, 1998; 박영자,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1980년대)』, 성균관대 정의과 박사, 2004.

2)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끼어들어 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예론이나 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 혹은 문제 작품에 대한 작품론이 주를 이루었고 그것도 모두 남성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³⁾ 이는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유 외에도 북한 사회 변화의 큰 줄거리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언표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 연구자들이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북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 혹은 여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⁴⁾은 작품 발표 시기나 작가의 생물학적 신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여성 등장인물만을 문제 삼음으로써 그 결론의 엄밀성이나 보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북한 사회에서 여성 정책이 변화하는 시기적 구분이라든지, 남성 작가인지 혹은 여성 작가인지 하는 작가의 신원을 구별하지 않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형상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문학 작품의 긴밀한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시기 특정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의 시대적 의의를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현실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 작가가 공식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갈려 있는 여성의 내밀한 경험을 대변하기란 어렵다. 물론 북한 사회의 특성상 여성 작가도 공식적인 정책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지만 작가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경험을 쓸 경우 실감에서 우러나오는 디테일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4) 김현숙,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논집』 11, 1994.; 김현숙, 「북한문학에 표현된 여성의 주체성과 지향」, 『여성학논집』 16, 1999.; 이주미, 「북한문학을 통해 본 여성해방의 이상과 실제」, 『한민족문화연구』 8, 2001.; 오은경, 「남북한 여성 정체성 탐구: 19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6-1, 2002.

그런데 실제 북한 문학에서 ‘여성문학’이라고 표방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북한의 ‘여성문학’을 상정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사회에서 남녀평등법의 제정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여성이 봉건적 억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사회적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 것이므로 여성들에게만 특수한 것으로서 ‘여성’문학이 존재할 명분이 없다. 해방 직후 남녀평등권법령이 제정된 이래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여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왔다. 그 전 사회에서 자행되던 여성 차별과 억압은 철폐되었기에 ‘여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여성이 북한 사회 건설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것만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과 법령의 구체적 실천은 별개의 문제이며, 법령 자체도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사회적 노동에 동원되는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조건으로서 ‘여성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의 여성 정책은 여성이 전래의 가부장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로 평등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과 국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모성을 효과적으로 동원한다는 양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시기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참여와 동원, 혹은 그 결과로서의 해방과 억압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통제가 강한 북한 사회의 경우, 공식적 언어 이면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화되는 삶의 현실은 다성적 발화가 가능한 소설 장르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바깥으로 드러난 법률이나 제도, 공식적으로 언표된 정책과 강령을 넘어서서 이런 미묘한 갈등 양상을 포착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런 여성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여성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북한 사회의 성격상, 작가 개인보다는 작

품이 부각되는 측면이 강해⁵⁾, 작가 개인에 대한 연구나 정보는 그리 많지 않으며, 또한 있다고 해도 남쪽에서 관련 자료를 접하기가 어려운 판에, 여성 작가는 그 존재가 상대적으로 더 미약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여성작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해방 후부터 나오고 있는 『조선녀성』 같은 잡지에는 많은 여성이 시와 소설을 발표하고 있으며 개인 시집이나 작품집을 낸 여성들도 있다. 그리고 『조선문학』에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자주 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 출간된 잡지와 단행본에 발표된 여성의 작품을 읽어보면 정책이 요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 자신의 문제를 예민하게 담아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유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동안의 북한문학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된 여성 소설가의 작품 중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의 여성 정책이 가지는 해방과 억압의 이중적 측면이 여성 자신의 삶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여성작가들이 보여주는 ‘여성문학’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조선문학』지에 실린 단편소설 중 여성 작가의 것을 주된 자료로 하면서 그밖에 단행본 자료와 『조선녀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고하였다.⁶⁾ 이외에도 『청년문학』, 『문학신문』, 『문학참고자료』 등에도 작품이 발표된다고 하니⁷⁾ 지면의 대표성이나 전문성 등을 감안

5) 이런 경향이 심해진 1970~80년대 초반에 나온 ‘불멸의 역사 총서’ 같은 경우는 아예 작가 개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6) 『조선문학』은 최근 해방직후부터 2000년까지의 잡지 영인본이 나오고 또한 최근 발간본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일반 연구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는 반면, 『조선녀성』은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것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마이크로 필름 상태로 있고 그밖에는 최근의 호수들만 있는 상태여서 참고하기 쉽지 않다.

7) 최진이, 『북한여성시인 렬형미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2006, 3~13쪽 참고.

하고 또한 자료 구득의 용이성 차원에서 주로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양이나 질에서 논의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임순득, 이정숙, 강복례 작가와 그 외 몇몇 작가들의 문제적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다.

2. 북한 여성정책의 변화 과정 - 해방과 억압 사이

해방 후 ‘남녀평등권 법령’을 통해 여성의 평등권과 사회 참여의 정당성을 보장한 이래, 195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당연시 되었고 농업협동화 등을 통해 가족 단위의 해체에 따른 가장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1961년 이후로는 그 위에다 사상 혁명과 관련하여 자식을 교양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가족에게 헌신할 것을 여성에게 요구하였다. 이때부터 직장일과 가정일이라는 두 가지 부담 사이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소설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각 시기의 작품을 읽을 때는 그 시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대한 여성 자신의 반응이라는 것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여성정책의 뿌리를 소련의 여성정책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런 정책이 별 저항이 없이 뿌리를 내리 수 있었던 토양으로서 그 이전의 여성의 역사적 경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소련의 여성해방논쟁은 콜론타이의 ‘신여성’ 모델과 크롭스카야의 ‘어머니-노동자’ 모델의 대립을 통하여 드러났다. 콜론타이는 여성의 종속심리를 파괴하고 ‘지적인 질을 소유한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지향한 반면 크롭스카야는 교육을 받고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 전반에 참여하면서도 양육과 생활 관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을 지향했다. 이러한 논쟁은 소련 전체

의 권력 투쟁과 맞물리면서 크롭스카야의 ‘노동자-어머니’모델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⁸⁾ 크롭스카야 모델은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와 러시아의 전통적 모성상을 결합시킨 것으로 여성이 노동자와 어머니 역할을 훌륭하게 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이 생산과 재생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여성보호 정책 - 교육 기회와 노동조건 개선, 모성보호와 가사 부담 완화 등 -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이 소련의 여성정책으로 제도화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도 이식되었다.⁹⁾

한편 역사적으로 여성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근대적 경험으로는 대한제국기 계몽운동의 담당자들이 국민의 어머니인 여성도 국민이라고 하며 여성 교육을 촉구한 것을 들 수 있다.¹⁰⁾ 그러나 이 운동은 식민지화와 함께 중단되었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일부의 여성들은 ‘신여성’이 되었고 일제하 여학교는 ‘현모양처’들을 길러내었다. 급진적이고 개인적으로 여성문제를 제기했던 신여성과 현실 안주적인 현모양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등장했고 그들은 자율적 여성주체로서 콜론타이의 신여성을 이상으로 삼으면서도 식민지 현실에서 민족운동에 참여했고 남성과 대등한 동지적 관계를 갈망했다.¹¹⁾ 한편 일제 말기 ‘전시 총동원 체제’는 독자성을 주장하는 ‘신여성’을 배제하고 ‘현모양처’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군국의 어머니’를

8) 차인순, 「소련여성의 경제적 지위」, 『여성연구』 36, 한국여성개발원, 1992. 가을; 박영자,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80년대)」, 성균관대 정의과 박사, 2004., 30쪽에서 재인용.

9) 박영자, 위의 논문, 31쪽.

10)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 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9, 1996 참고.

11) 이에 대해서는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 연구』 10, 2006 참고.

표어로 하여 식민지 조선의 여성을 전쟁에 동원했다. 여성은 병사를 낳아 전선에 내보내는 군국의 어머니이며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노동자였다.¹²⁾ 국가가 여성들을 전쟁에 동원했을 때 일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전쟁 참여를 통해 여성의 해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때 일제가 여성을 동원하면서 펼쳤던 논리는 이후 국가가 여성을 동원하고자 할 때 원용되었고 여성 자신에게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해방 후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공포했는데 여기에는 성별과 연령을 불문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노동 여성에 대한 산전 산후 휴가 보장, 모성 보호, 수유 시간 보장 등 여성 관련 사항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은 원칙적으로 노동에 대한 참가를 통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고 모성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법령을 발표한 한 달 후인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전통사회와 단절하고 여성의 개체화와 지위 향상, 사회적 역할 강화를 추진하여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위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개체화를 지향했다. 즉 가족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의 대가족을 핵가족화함으로써 여성을 봉건적 공동체로부터 독립시켜 사회로 진출하게 했고, 가족 속에서 여성이 독립된 개체로 설 수 있는 것을 보장한 것이었다.¹³⁾ 이 시기 이론적으로는 전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2) 이에 대해서는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 2002 참고.

13) 해방 후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의 기관지로 나온 『조선여성』 1947년 3월호에는 「완전한 권리 있는 공민으로서의 쏘베트 여성」이라는 콜론타이의 글이 소개되고 있다. 해방 후에 콜론타이의 『신여성론』도 번역 출간되는데 이는 소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해방 전 여성 활동가들이 꿈꾸었던 여성의 모델이 콜론타이가 제시한 ‘신여성’이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한 미혼 여성의 노동자화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1946년 11월부터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이 시작되면서 ‘노동자-어머니’ 모델이 선전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기 절대적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전쟁과 후방 지원에 동원되면서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 모델로 강화되었다. 이 시기는 여성의 노동계급화라고 하는, 해방의 열기 속에서 자기해방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열망과 새 국가 건설에 여성노동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북한 정책이 상호 큰 모순 없이 만난 시기이었다.

전후 복구를 넘어선 건설기인 1956년부터 경공업과 지방 공업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력 증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러면서 전후 건설 과정에서 중앙·남성·중공업 / 지방·여성·경공업이라는 생산 부문의 위계화와 성역할의 위계를 구조화했다. 즉 계획 경제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남성은 중공업에 여성은 중공업에 배치한 것이 직장에서의 성별 위계로 고착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1958년 합의 이혼제를 폐지하고 재판이혼만 가능하게 한 것은 가족의 안정화를 통해 노동자-어머니 모델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이 시기 혁신적 여성 노동자의 역할은 생산증대, 애정과 헌신, 노동자 생활관리 등으로 공장에서도 노동자이자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지만 혁신적 여성 노동자는 대부분 미혼 여성이었다.

이때 제기된 혁명적 어머니상은, 주체사상을 내세운 1967년 이후 강반석 - 김정숙을 신화화하여, 생활경제를 책임지고 혁명하는 남편을 보조하며 혁명의 후비대인 아이들을 잘 키우고 혁명활동에 참여하여 가정을 혁명화하는 역할을 가진 것으로 강화되었다. 이제 여성은 혁신적 노동자이자 혁명적 어머니가 되기를 요구받았다.¹⁴⁾ 그런데 이런 노동자-

14) 박영자,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13,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5.

어머니 모델은 여성에게 직장일과 가정일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관습에 기댄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주의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해방 후 제기되었지만 전쟁의 위기와 전후 복구의 간고함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치부되었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역시 제반 물적 조건의 미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은 이중의 부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혁신적 노동자 역할에 충실하려면 가정을 돌볼 틈이 없어 어머니이기를 포기해야 하고 혁명적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우려면 혁신적 노동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었다. 이것은 북한 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적 갈등이었다. 또한 이 갈등은 생산의 혼란, 생산주체간의 갈등과 저항, 가정의 안정성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

여성 작가의 작품에는 처녀시절 혁신적 노동자였던 여성이 결혼 후 집안일에 충실하기 위해 좀 더 편한 일자리로 옮겨 앉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소설은 그것이 국가적으로 노동력의 낭비이며, 그런 식으로 육아에 매달리는 것은 후비대를 교양하는 혁명적 어머니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식으로 그런 안일함을 선택한 여성을 비판하고 - 비판자는 동료 여성이거나 아니면 남편이다 - 문제의 여성이 다시 사회적 노동에 헌신하는 것으로 결말짓는다. '슈퍼 우먼'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슈퍼 우먼이 되지는 공식적인 주장이 아니라 혁신적 노동자와 혁명적 어머니 사이에서 여성이 갈등하는 상황을 여성작가들 대부분이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과 시기에 따라 또 작가에 따라 이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결혼한 여성의 이중부담의 문제는 북한 여성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 해방 직후의 남녀평등법령과 자율적 여성 주체

해방 직후 시기의 여성작가의 작품은 일제하 여성 문학의 전통을 잇는 측면과 해방 후 북한 사회에서 새롭게 전개될 변화한 여성의 삶의 조건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맹아적으로 모두 보이고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제의 인습이 유난히 강고했기에 제도적 해방이 여성에게 가져다 준 진보의 환희를 열광적으로 토로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봉건적 유습이 아직 강고하게 삶 속에 남아 있는 채로 제도만 바뀐 상태이기에 그 제도가 일상의 삶에 적용될 때 생길 수 있는 갈등 또한 놓치지 않고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해방 직후의 작품들을 통해 북한 여성 문학의 원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여성작가로 임순득을 들 수 있다.

『솔밭집』은 자전적 면모를 띤 여학교 교사 ‘나’의 일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용례어머니의 삶에 해방이 가져다 준 변화를 그렸다. ‘나’는 원산의 여학교 수리 교사이다. 해방 전에는 강원도 추지령 모퉁이 생깁 들판에서 살았는데 그때 ‘솔밭집’으로 불리던 용례 어머니를 알았다. 그녀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남편에게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지만 해방 후 토지 개혁과 민주개혁으로 당당해지고 생활도 안정되었다. 해방이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이 용례 어머니가 근대적 부엌시설에 감탄하면서 자기 딸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대목이다.

가사실습실 수도 장치, 으리으리한 찬장, 요리대, 모두 둘러보고 만져 보며 희한해서 입만 떡 벌린다. 가스 불을 켜 보니 냄새도 역하지만 도깨비 불같다고 끄려했으나 수도를 틀으니까 반색을 한다.

“아유 벽 새이서 물이 졸졸 흐른다니”

수돗물 줄기를 소금섬에 꽂아놓고 서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우리 북조선 인민경제 계획만 제 일차 제 이차 이렇게 착착 오류년을 두고 진행 완수한다면야 썰경 일판은 물론이요 염수골 은적사 호양두멧골 박죽테기까지 이렇게 설비가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나는 주변 없는 웅변을 들입다 토하는데, 죽어 다시 인도 환생하고 싶다고 자주 물 버리는 타일 박은 네모 사기 판을 어루만진다.

“용련 몰라도 우리 용순이 년만 해도 이런데서 공부랑 허겠지?”

“그럼은요 살림도 허지요 그뻐 따로 제 살림만 한다고 행주치마에 매이지 않습니다. 공동식당에서 밥해주고 공동세탁소에서 빨래 해주고”

“그럼 에펜넨 집에서 낮잠만 자나 온 벨 소릴 다한다.”

“공장에 가 일 허구 농장에 가서 기계 부러 노래와 함께 김을 매고……집에 와서 신문을 보던 춤을 추던 산보를 가든……”

“원산 아줌마 이야기 듣고 보니 도깨비한테 홀린상실소 아모턴 사람의 자식은 가르치고 불일이지”

용련 어머니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가사노동을 여성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얼른 용납하지 못했으나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낡은 관념을 쉽게 떨치고 스스로도 한 개체로서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딸과 어머니와』이다. 어머니는 해방을 맞이하여 ‘딸’의 어머니로서는 ‘지극히 소박한 진보적인 사상’인 남녀평등을 쉽게 받아들여 해방전 과부된 딸이 이왕이면 총각을 만나 묵은 시름을 씻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아들’의 어머니로서는 나이가 아들보다 많고 한번 결혼한 전력을 가진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낡은 생각과 습관이 그리 쉽게 고쳐질 수 없고 현실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날카롭게 포착한 것이다.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강한 소설 『우정』은 겉으로 내세운 것은 소련군 장교의 우정이지만, 그 이면에서 작가는 활달하고 진취적인 아내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남편 사이의 심리적 갈등을 통해 한 여성이 내적 외적 속박에서 벗어나 주체로 서게 되는 과정에 역점을 두었다. 화숙의 남편은 자존심은 강하면서 소심한 성격으로 일제시대에는 내면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지만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여 그 자책감으로 자기와 주위 사람을 갇아먹으며 신경질을 부렸다. 화숙이는 그런 남편을 해방 전에는 이해할 만했으나 해방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방 후에는 화숙이 나름대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남편에 대한 심리적 종속에서 벗어나 참된 동반자로서 부부관계를 재설정하게 된다. 콜론타이가 설정한 ‘신여성’의 이상에 가깝게 여성이 개조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아직 노동자-어머니 모델이 강고화 되기 이전의 북한 여성의 주체 세우기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¹⁵⁾

4. 건설기의 혁신적 노동자로서 여성의 참여와 동원

6·25 전쟁 이후, 50년대의 전후 건설 시기 및 60년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본격적으로 생산 현장에 뛰어든 여성들이 직면하는 제반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 문제란 생산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비하, 관료주의, 여성들의 자기 비하 등이다. 여성 작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매우 솔직하게 다루고 있으며, 혁신적 여성 노동자의 노력으로 생산력 제고 과정을 통해 그 비합리성이 비판 극복되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여성작가는 리정숙이다.

일찌기 리정숙은 『조선여성』의 기자로 있으면서 해방 직후 ‘빛과 낙

15) 이들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상경,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참고.

원의 평양견직공장방문기』라는 보고문을 썼다. 거기에는 여성의 노동자 화가 포착되어 있다.

“결혼하게 되어 이 공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물었던 것이다.

처녀들이라 ‘결혼’이란 말에 잠시 귀밑들이 빨개지며 키득키득 웃기도 하더니 한 여공이

“결혼한다고 고만둬야 하나요…… 우리들의 기술은 언제나 나라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내 낮이 붉어지는 듯싶다. 2년 동안의 자유로운 생활은 새 생활감정에 몸소 젖은 새 세대의 젊은 일꾼들을 육성하였다.

결혼보다는 노동을 통해 사회적 주체로 서기를 원하는 미혼 여성의 면모는 『선희』(『조선문학』 1957.9)에서 좀더 깊이 탐구된다. 『선희』는 지방농장의 여성과 그를 지도하려는 남성 반장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한다. 양돈공인 선희의 집에 새로 부임한 반장 정준호가 기숙하게 되었다. 선희는 정준호의 일상생활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으로 돼지 기르기에 열심이다. 처음 준호는 강한 집행력으로 양돈장의 청소부터 시작하여 돈사의 면모를 일신하였고 선희는 그러한 타협 없고 엄격한 반장 준호의 모습을 좋아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원들은 준호가 돈사의 외양과 숫자로 표시되는 실적만을 중시하고 정작 돼지나 그 돼지를 기르는 양돈공에게는 애정이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선희 역시 그런 점을 느끼지만 사랑 때문에 준호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다가 준호가 아직 어린 돼지들로 하여금 새끼를 배게 하자고 제안하자 선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는 성실한 양돈공만이 가지는 돼지에 대한 사랑과 이해

가 바탕이 되었고 거기에 친구인 옥분의 비판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옥분이는 대놓고 준호의 지도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 준호는 “워낙 여자들을 그리 존경하지 않지만 더구나 총명한 여자는 더 좋아하지 않았다. (...) 그래서 그는 영악한 옥분이보다는 그래도 순종을 좋아하는 다소곳한 선희 편이 백 배 낫다고 생각”한다. 준호의 지시가 돼지에게 좋지 않은 것인 줄을 알면서도 다소곳하게 따르는 선희를 본 옥분이는, “참 답답하구나 넌. 애 좀 빼젓해지려무나. 글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반장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돼지를 기르는 게지.”라고 비판한다. 이런 옥분의 말에는 자발성을 갖고 사는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희는 설사 사랑의 이름이라 해도 굴종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비로소 똑똑히 깨달은 자신을 느끼면서” 준호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 사람의 혁신적 노동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산새들』(중편소설, 『조선문학』 1961.12~1962.2 3회 연재, 1966년 단행본으로 발간)은 평양방직공장을 배경으로 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천리마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그렸다. 미혼의 여성들이 대부분인 작업반에서 반장이었던 명자와 새로 반장으로 파견된 정애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졌다. 만사를 양분해서 바라보는 냉철한 명자는 반원들을 단결시키지 못하는 반면, 반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귀기울이면서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정애는 여성 내부의 미묘한 심리를 포착하여 결국 반원들을 혁신시킨다. 명자와 정애의 갈등을 단지 재미로만 바라보던 남자 반원들까지 정애는 천리마 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¹⁶⁾

16) 남성 작가도 당연히 혁신적 노동자를 그린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보면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이상과 열정에 넘치는 남성 혁신적 노동자와 그를 사랑하나 이해하지는 못하는 현실 안주 경향의 여성이 갈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리정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기혼여성인 춘실이 가 혁신적인 노동자 역할과 가정에 충실한 아내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은 직장과 가정의 일 이중 부담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맹목적 사랑과 남편의 무반응 때문이다. 춘실은 매우 순종적인 성격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남편 역시 춘실의 공장일에 이해성이 많은 ‘좋은’ 남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춘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춘실이 남편의 밥도 제대로 못해 주는 것이 미안해서 공장일을 그만 두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춘실의 마음이나 미래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실무적으로 정당하게” “국가 사업이 더 중요”하므로 그만 두지 말라고 한다. 이런 관계에서 춘실이는 늘 불안하고 고독한 것이다. 그런데 반장 정애가 춘실을 공장일에 열정을 가지도록 끌어들이므로써 드디어 이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었다.

춘실이는 기사가 될 것이다. 배우고 실천하는 기수, 기사는 자기의 주장 생산에 대한 더 높은 욕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으로 해서 남편과 논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익숙지 않은 춘실의 반발에 성도 내고 놀라기도 할 것이다. 성은 내지만 어쨌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춘실의 눈이 전에 없이 빛나기 시작하였고 빛은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그 빛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조선문학』 1962.1, 70면)

이렇게 『산새들』에서 리정숙은 여성이 사랑에만 매달려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남자의 사랑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 여성의 노동자화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시기가

숙의 작품에서는 남성 여성의 경향이 뒤바뀌어 있는 것에 여성 작가로서 리정숙의 면모가 보인다.

기에 ‘이중 부담’의 문제보다는 남성과의 동등한 관계, 동지적 관계에 기반한 사랑의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해방 전과 해방 직후의 여성문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셈이다.

5. 혁신적 노동자이자 혁명의 어머니인 여성의 이중 부담

1970년대는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도 다양한 개인의 사적인 목소리를 읽어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정책과 강령의 소설적 포장에 머무르는 작품들이 많이 보인다. 여성이 생산 노동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여성의 해방보다는 유휴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고, 동시에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아내였던 김정숙이 혁명적 어머니의 모범으로 제시된다. 이제 여성들은 혁신적 노동자이자 혁명적 어머니이기를 요구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성작가들은 혁신적 노동자로서의 여성은 그전부터 다양하게 탐구되던 것이기에 유사한 인물들을 창조하나, 혁명적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그 모습을 잘 그리지 못하고 있다. 즉 부정적 인물로서 이중부담에 허덕이는 여성을 그리기는 하지만 긍정적 인물로서 혁명적 어머니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에서 찾기보다는 과거(항일투쟁기와 전쟁기)의 인물을 반복해서 그리는 데 머무르고 있다. 즉 일제시대와 6.25 시기 유격대나 군인이었던 남편이 죽은 뒤,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어머니나 아내의 모습이 아니면 부상병 치료에 헌신하는 여의사나 간호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혹은 고아를 데려다 자기 아이처럼 기르는 사회화된 모성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는 ‘혁명적 어머니’라는 정책의 요구가 실제 여성의 현실에서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이며, 그것을 요구할수록 여성들은 이중부담이라는

‘여성문제’만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인 사실임을 드러낸다.

김영순의 『그해 봄』(『조선문학』 1972.10)에는 육아에 몰두하는 보통의 어머니 생활을 하는 경옥과 혁명적 어머니 생활을 하는 순애가 대비된다. 축산기수로서 축산기사와 결혼한 경옥은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연구에 몰두하겠다고 생각했으나 차차 “자기가 남편의 연구 사업에 별로 신통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될수록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고 더욱이는 첫 애기를 낳은 후로부터 가정 살림에 신경을 쓰게”되었다. 경옥은 그러한 변화를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기의 기쁨도 행복도 모든 것을 어린 것과 남편에게서 찾으며” 생활한 것이다. 그러다가 남편이 출장가면서 연구에 필요한 일을 부탁한 것을 번번이 놓치고 실수를 하게 되었다. 소설은 출장 갔던 남편이 순애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혁명적 어머니가 된 것에 자극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진정으로 경옥이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돕겠다고 한다. 그래서 경옥이도 뒤늦게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혁명적 어머니가 되는 길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혁명적 어머니인 순애의 모습은 남편의 입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전해지고¹⁷⁾ 보통의 어머니인 경옥의 일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경옥이의 일상은 행복한 주부의 그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것, 아이가 다니는 탁아소에 다래 넝쿨을 옮겨 심는 것, 아이의 옷가지를 고르는 것, 고운 천으로 바느질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을 하느라 동물을 돌보는 중요한 일을 잊어 먹기 일쑤인 것이다. 이러한 경옥이의 생활은 당시 기혼 여성들의 일상생활이

17) “순애 동무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어머니다운 혁명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감복했소.” “순애 동무는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첫 아기 때보다 두 번 째 아기를 낳은 뒤는 더 큰 것을 창조하기 위해 투쟁했소.”(『조선문학』 1972.10, 84쪽)라는 남편의 말 이외에 순애가 창조한 더 큰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었을 것이다. 그것이 생산성 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으로 비판 받지만 여성이 가정일을 혁명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소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김련화의 『여울물 소리』(『조선문학』 1982.6)는 대학 선후배인 금희와 영심을 대비시킨다. 설계원인 금희는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후에는 직접 설계를 하기보다는 남의 설계에 대해 제도와 계산을 깔끔하게 하는 조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비록 큰 대상을 맡아 척척 처리는 못해도 가정부인으로서 그들의 사업을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뒤바침해주는 굳건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가정부인들이야 술한 돈을 먹여 값비싸게 양성한 만년 조수”라는 동료 남성의 혐구에도 익숙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현장의 기사로 일하던 영심이 같은 직장으로 오면서 그런 자부심과 평온이 흔들리게 되었다. 영심이는 금희를 생각해서 가정부인 기사들에게도 설계를 맡겨달라고 주장하여 다리 설계 일을 따온 것이다. 직접 설계하는 일에 손을 놓은 지 오래인 금희는 “가정과 직장일을 안고 부산스레 뛰어다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아픈 과제”라고 하면서 무난하게 다른 사람의 설계를 가져다가 활용하자고 한다.

소설의 결말은 결국 영심이의 열정에 감화된 금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를 완수하는 것인데, 이 소설에서 주목할 대목은 금희가 결혼하면서 직장일에 열정을 잃게 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금희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통념에 안주한 탓이지만¹⁸⁾, 자세히 읽어 보면

18) 금희는 문득 (...) 처녀시절을 회상했다. 꿈도 크고 열정도 뜨거웠다. 하지만 결혼 후엔 그 모든 것을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정주부란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면서(...) 아니 제도술이 높고 계산이 빠르면서도 정확하다는 찬사 속에 그리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준박사가 된 남편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가진 행복한 가정이라는 평판 속에서 처녀시절의 불타는 탐구심과 창조적 열정도 점차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조선문학』 1982.6, 25쪽)

가부장적인 남편을 뒷받침하느라 가사노동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워낙 가정일에는 담을 쌓고 있던 남편”, “남편은 그의 일손을 도와준 답시고 딸애의 머리 장식에 쓸 꽃송이들을 그 투박한 손으로 매만지다가 죄 망가뜨려 놓았다.”,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 언제 한번 부엌일을 해보지 못한 남편이 끼니를 끓이느라 아침 출근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발목을 붙잡고 자꾸만 그를 뒤로 꼬당겼던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들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준 박사가 된 남편을 금희가 얼마나 ‘뒤바침’을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그 결과로서 금희가 ‘만년 조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준다.

최순영의 『눈보라 멎은 밤』(『조선문학』 1987.5)에서 학교 교원이었던 영옥은 출산 후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편한 일자리인 양수공으로 옮겨 앉았으나 보람없는 일을 하면서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교원 생활은 힘들지만 아이들과 실랑이 하면서 활력도 생기고 존경도 받았는데 하루 종일 몇 번 양수기를 들여다 보면 그만인 양수공 생활은 권태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일상이 권태로워지면서 남편과도 서먹서먹해지자 도로 교원으로 복귀하여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다.

여성이 결혼을 하면 이중부담을 지게 되고 그런 만큼 좀 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용인되고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한 여성들은 결국은 후회한다는 것, 그 후회는 남편은 창조적인 일로 사회의 인정을 더 받게 되는 반면, 아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동등했던 부부관계가 깨어지면서 사이도 서먹해진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힘들더라도 직장일과 가정일을 모두 열심히 하라는 것이 소설의 주제이다. 혁신적 노동자이자 혁명적 어머니인 여성이 되라는 것이다. 이런 설정과 결말은 상투적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설정과 결말이라고 해도 그 세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 다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 주부의 ‘행복한 생활’을 손에 잡힐 듯이 보여주거나, 남편의 가부장성이 문제라고 지목하거나, 남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고 일을 할 것이면 주목 받는 일이 좋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혁명적 어머니’와는 거리가 먼 생활이지만 북한 여성들이 바라는 일일 것이다.

위 세 여성 작가들과는 달리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 강복례는 정책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강복례는 작품 활동 초기부터 『수연이』(1960) 같은 작품과 「전사의 안해」(1966.8) 같은 작품을 병행해서 발표했다. 즉 생산 현장에서의 여성의 활동뿐만 아니라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한 혁명적 어머니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사의 안해」는 전쟁기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내가 전투를 지원하는 것을 소재로 했고, 「싸움의 나날에」(1972)에서는 나이가 어려 전선에 나가지 못한 옥심이 고아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소재로 했다.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를 가지러 하루 건너 한번씩 100리나 넘는 목장에도 다녀오고 아이들이 항상 웃음 속에 자라도록 무진 마음을 쓰는 옥심은 혁명적 어머니인 셈이다. 단편소설 『한 대오 속에서』(1978)는 전쟁 당시의 나이 어린 간호원의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보여주는데 여성의 헌신성을 국가의 이름으로 불러내는 쪽에 강조가 있다.¹⁹⁾

또한 공장이나 농촌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혁신적 노동자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강복례는 여성의 해방보다는 혁신적 노동자로서 ‘공장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다. 「공장의 주인들」(『조선문학』 1979.8)은 이제 막 공장에 배치되어 ‘로라교환작업반’에서 일하게 된 어린 여성

19) 이런 인물들은 강복례의 소설에서 반복될 뿐 아니라 다른 여성작가나 남성작가의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의 실감에 기초한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의 시선으로 베테랑 급의 세 여성을 비교한다. 생산량을 과시할 수 있는 정방공은 상도 받을 수 있지만 로라교환공은 그들을 뒷받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정방공 오춘실은 상을 받고도 어디까지나 겸손하다. 옥희는 뛰어난 정방공이었지만 로라교환을 잘 하는 것이야 말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일부러 로라교환반 반장으로 왔다. 큰 금옥이는 생색나지 않는 로라교환작업을 하게 되어 불만인 인물이다. “난 그런 바보짓은 안 해. 난 아직 그 동무의 안해가 아니야. 나도 당당하게 그 동무와 어깨를 겨루는 혁신자가 되고 싶지, 벌써부터 휘지 해서 뒤바침이나 해주구 싶진 않아. 내게도 자존심이 있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장인 옥희는 “나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싫어. 그러나 그 자존심이 공장을 위하고 생산을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그런 자존심이라면 그건 리기주의야.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일을 잘 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을 땐 일을 잘 안 해.”라고 비난한다.

여기서 큰 금옥이는 최순영 소설의 영옥이처럼 생색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순영 소설에서 영옥이는 다시 생색이 나고 보람이 있는 일자리로 돌아가는 반면, 큰 금옥이는 로라 교환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성을 보인다. 이 대목에서 강복례와 다른 여성 작가들(이 논문에서 다룬 한도 내의)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강복례는 다른 여성 작가보다 훨씬 더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식성은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의 현실적 표상을 그린 단편소설 『직장장의 하루』(『조선문학』 1992.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방직공장에서 12년간 직포공으로 일하면서 지금은 직포직장장으로 있는 김명옥은 대학에 다니면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언제나 바빴다. 직장장이 되고 보니 더 바빠졌다. 소설은 김명옥의 바쁜 아침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학교 챙겨 보냈지만 남편의 웃은 미처 다림질해 주지 못해 미

안한 마음의으로 출근한다. 출근해 보니 공장에는 아직 자재가 도착하지 않아 손 놓고 있는 상태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해결하고 나니 숙련 공인 탄실이가 아이 때문에 결근했다는 보고가 있다. 부직장장은 남자인데 그는 아이 엄마들을 보조 부문에 돌리자고 제안을 한다. 모성 보호와 여성의 노동자화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인데 김명옥은 노동자화에 더 우위를 둔다. 가사 부담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려는 탄실을 찾아가서 “우리가 쉬운 일자리를 찾고 남편에게 매달려 산다면 거기에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어.....”라는 말로 설득한다. 사랑 싸움하는 여직공도 설득시켜 돌려놓고 저녁에 집에 잠깐 들러 아이 저녁밥을 챙겨준다. 아침에는 통명스럽기만 하던 남편이 저녁에는 나서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에 기운을 얻어 직공 결혼식까지 무사히 참석하게 된다. 이렇게 소설은 여성 직장장의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묘사하면서 바쁜 일과를 수행해 내는 여성의 종종 걸음을 뒤쫓아 간다. 김명옥과 탄실의 남편을 비교해서 남편의 협조가 있을 때 그런 여성의 이중 임무가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문예정책과 여성 정책을 충실히 따라온 강복레는 김명옥이라는 이상적인 여성을 제시했는데, 독자가 거기서 읽는 것은 ‘혁신적 노동자 - 혁명적 어머니’ 여성의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며, 그런 점에서 『직장장의 하루』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이상적인 여성이 될 수 없다는, 여성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낼 뿐이다.

6.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의 새로운 의식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신인의 작품에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 작가들이 ‘여성’임을 표나게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리라순의 『행복의 무게』(『조선문학』 2001.3)와 최련의 『바다를 푸르게 하라』(『조선문학』 2004.2)이다.

『행복의 무게』에서 유경의 남편 근석은 처음에는 유경의 지도를 받는 하급생이었는데 연구에의 열정으로 공동연구를 하는 동료가 되었고 이제는 결혼하여 유경과 부부가 되었다. 유경은 “과학에는 정열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난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반대해. 어쨌든 이상적인 생활을 꾸리지 못하겠니. 난 꼭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가사노동에 쫓기면서, 결정적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충격으로 “축매연구도 가정생활도 모든 게 저에게 힘에 부쳐요.”라고 연구를 포기하고 훨씬 여유 있는 과학기술통보실로 일을 옮겼다.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또 자기자신도 성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은 여성의 이상이지.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 너성의 성공에 비겨진 가정은 벌써 균형이 파괴되어 엉망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남편이 주부가 되었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때식을 번지던지...”라는 의사 친구의 말은 이 때 유경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축약한 것이다.

친구의 말처럼 아침에 바빠서 통강냉이를 으깬 시간이 없었기에 유경이는 아이에게 통강냉이밥을 먹으면 스티커를 주겠다고 달래가면서 억지로 먹여 탁아소에 보냈다. 저녁에는 실험이 늦어져 허둥지둥 탁아소로 달려가면서도 새로 떠오른 착상에 정신을 팔다가 자전거와 부딪치

는 사고까지 났다. 그 순간 착상은 달아나고 탁아소에 가니 아이는 배를 안고 뒹굴다가 병원에 갔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아이 옆에서 밤을 보낼 작정으로 아이한테 갈아입힐 옷을 가지러 가다가 다시 착상이 떠오르는 바람에 실험실로 직행해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잠들어 버렸다. 그런 유경이를 두고 의사는 “한심한 여자요. 어쩌면 자식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소.”라고 비난하고, 동네 사람들은 유경이가 남편을 ‘홀애비’로 만들어 놓는다고 흉을 본다. 친구인 미영이는 그러다가 이미 가정을 잃은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때 유경은 “일생 가정을 이루지 않고 험난한 과학의 봉우리를 향해 벼랑길을 뚫아 뛰어가는 뛰어난 여성과학자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연구사를 그만 두고 기술 통보실로 옮겨 앉은 것이다.

한동안 일상이 여유롭게 돌아가면서 좋았으나, 남편은 “실망”이라는 말을 남기고 연구를 혼자 진행하면서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고 유경은 우울증을 앓는다.

엄혹한 오늘날 가정살림을 도맡아 나서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들을 여전히 사회적 의무에 충실하도록 떠미는 여기에 녀인들의 강의 성과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유경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마음 속 한구석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는 허무함으로 하여 까닭없이 반발심이 솟구치곤 하였다. 어쩐지 원인없이 온몸이 곤욕을 치른 것처럼 시름시름 아파 나기도 했다.

소설은 남편이 유경에게 연구를 그만두는 것은 ‘시대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조국의 과학적 진보’에 역행한다고 설득하여 유경이 다시 연구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공했다고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이중의 부담에서 허우적거리는 고통의 절실함에 비하면 그녀를 설득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추상적이다. 유경이가 어떻게 생존과

육아를 해결하고 연구 현장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성공담은 그 성공이 허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기에 이 소설이 실제로 제기하는 것은 유경이 겪는 고통의 절실함이다. 그 이전의 소설들에서 여성들의 부담이란 그냥 ‘힘들어서’, ‘가정에 충실하려고’하는 정도로 전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리리순의 소설에는 그 어려움이 절절하게 묘사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가족의 생존을 여성이 떠맡아야 했던 중압감과 절박함이 그런 생생함과 거침없음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최련은 『따뜻한 꿈』(『조선문학』 2002.1)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관료주의 때문에 여성과학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연구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렸다. 그리고 『바다를 푸르게 하라』에서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만 특별하게 강요되는 ‘이중의 짐’을 주제로 삼았다. 가정일과 직장일이라는 이중부담의 문제를 여성 내부의 문제(한 개인이 안이한 가정부인이 되는 것과 혁신적 노동자가 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안이한 여성과 혁신적 여성이 서로 갈등하는 것)에서 여성 대 남성 혹은 여성이 속한 사회의 문제로 전화시켰다는 점에서 최련과 복한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다.

이 작품에서 연경이는 남편과 아이를 몇 년간 내팽개치다시피하고 연구를 진행시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빨리 연구를 마무리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해송이는 연경의 방법이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동안 연경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송이가 알게 되면서, 다시 또 몇 년을 새로운 연구에 바치도록 해야 하는가라고 연경이의 가정사를 해송이가 고민하게 되고, 연구에 몰두해 있는 아내를 가정에 충실하도록 돌려 세우기 위해 연경의 남편이 아이까지 끌고 나타나고, 연경의 상관은 연경의 남편의 처지를 아는 만큼

기존의 방법으로 연경의 연구를 대충 마무리시키려고 하는 등으로 상황이 복잡해진다. 해송이는 연경이를 보면서 여성이 깊어진 ‘2중의 짐’을 속으로 되뇌는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연경이의 아이를 돌보아 주도록 주선을 한다.

왜 그 훌륭한 녀인은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짐을 더 져야 할까. 더 무겁고 더 힘든 짐을…… 연경 언니는 연구사업의 실패와 고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래 그것은 그가 겪는 마음속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도 하찮은 것이야.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뭐야? 그런 여인이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받을진대 대체 행복은 누구의 것인가.²⁰⁾

이러한 해송의 독백은 그전까지 북한 문학에서 발언된 적이 없다. 여성이 결혼하면서 좀 더 편한 일자리로 옮겨가거나 혹은 아예 전업주부로 되는 것에 대해,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여성 자신이 ‘안’한 선택을 하여 혁신적 노동자에서 멀어졌든지 남편의 도움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여성이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소홀했고 그런 만큼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고려가 없었다. 그런데 리라순의 『행복의 무게』는 여성이 처한 절박한 사정을 소설 속에 끌어들였고, 최련의 『바다를 푸르게 하라』는 이것이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이 처한 상황임을 표나게 내세웠다. 그런 점에서 이들 작품은 북한에서 ‘여성’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바다를 푸르게 하라』는 바다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자연보호가 맞부딪치는 생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새로운

20) 최련, 『바다를 푸르게 하라』, 『조선문학』 2004.2.

소설이다. 그 이전까지 북한 문학에서 묘사하는 과학연구 방법상의 갈등은, 비용이 높지만 쉽게 성과를 내는 방법과 어렵지만 돈이 안 드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양편 과학자 사이의 갈등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처음에는 당장 싸고 안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다를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개발한 연구사 연경과 그에 맞서 자기가 자라난 곳의 푸른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해송이가 대립한다. 그러나 두 여성이 금세 여성으로서의 상호 이해를 이루면서 연경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려 하는데 반해, 연구를 관리하는 남성들은 바다의 황폐화는 아랑곳없이 원래대로 해서 빨리 연구를 끝낼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수필 「사랑과 조국」에서 최련은 좀더 직접적으로 여성의 가정과 일(연구사업)사이의 갈등을 다루었다. 30대 여성박사와의 인터뷰에 대한 기록인데 ‘고난의 행군’ 시대에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동시에 지키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처음 가정을 이루었을 땐 가정과 연구 사업을 조화시키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 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조국이 커다란 시련을 겪던 바로 그때였어요. 생활의 시련은 우리 가정에도 닥쳐왔어요. 녀인들 모두가 그 누구보다도 남 모르는 마음 고생을 많이 겪어야 했지요. 나도 한 가정의 주부였어요. 나도 있는 힘껏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 보잘 것 없는 것이었는지 시련은 더욱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때 난 처음으로 나의 직업이 한 가정의 주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시 생활하기 편한 자리로 옮겨 앉을 생각에까지 이르렀어요. 지금은 우선 가정을 유지하고 보자. 훗날 다시 연구소로 돌아오면 될 거라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난 어느 날 출근하자 바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저녁에 실장 동지가 그 용지를 돌려주는데 놀랍게도 수표가 되어 있었어요.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바로 내 마음 속에서 벌어졌지요.

(...) 어쩌면 그리도 쉽게... 내가 정말 그런 서툰짜리 존재였던 말인가.²¹⁾

식량난 시기, 생산 조직이 생산을 담당하기보다는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서는 아마 한 사람이라도 조직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반겼을 것이다.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고 공식적인 배급 체계가 무너졌을 때 여성들은 이 체계에서 먼저 배제되었고 또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경로로 식량을 구하는 일에는 여성이 주로 나서게 되었다.²²⁾ 사표가 순순히 수리되었을 때 느낀 ‘공허와 모욕감’은 북한 체제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혁신적 노동자 - 혁명적 어머니상이 오로지 ‘동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의 느낌이 아니겠는가. 경제 위기로 더 이상 여성을 직장에 붙잡아 둘 수가 없어졌을 때, 애초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성의 참여와 해방이라는 가치는 일고의 여지도 없게 된 것이다.

7.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의 각 시기 여성정책이 여성에게 요구한 것과 그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북한여성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북한의 공식적 여성 정책이 북한 여성의 생활현실과 같등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분석했다.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여성이 지향

21) 최련, 『사랑과 조국』, 『조선문학』 2004.9.

22) 이 점은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임순희,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17, 평화문제연구소, 2005.5.;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18-1, 한국가족학회, 2006.6. 등의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하는 바와 여성의 갈등은 여성 작가의 작품에 미세하게 드러난다.

해방 직후 시기 임순득의 작품은 일제시대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을 이어 받아 여성이 종속성에서 탈피하고 개체화를 지향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성 외부와 내부의 적들을 묘사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에 작품을 많이 발표한 리정숙은 여성이 혁신적 노동자로 되는 과정과 거기에서 맞부딪치는 어려움을 여러가지로 포착하고 있다. 여성 혁신노동자의 성공담 속에서 남성 반장과 여성 반원 사이의 갈등으로 위계화된 성별 분업의 모순을 드러내거나 가정에 안주하고자 하는 여성의 존재와 그의 논리를 표출하는 것이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강복례는 6.25를 시간 배경으로 하여 후방을 지키는 혁명적 어머니를 주로 다루는 한편 혁신적 노동자도 그랬다.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 역할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김련화, 최순영 같은 작가도 나왔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공식 배급 체제가 붕괴되자 여성들이 식량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의 생존을 도모하는 부담을 지게 되니 여성의 이중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것, 남성적인 것, 기존의 것들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본격적으로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성작가의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거나 동원될 때 여성이 느끼는 해방과 억압의 실감을 알 수 있었고, 북한 사회에서 일정하게 인정받고 평가받았던 작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성정체성 문제의 실체를 밝혔다. 작가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임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성 정체성의 미세한 감각이 포착되었으며 개별 작품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여성 작가의 작품을 봄으로써 북한 여성 정책의 변화 속에서 여성문학 작품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선문학』, 『조선녀성』

2. 관련 연구논문 및 서적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김현숙,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논집』 11, 1994.

김현숙, 「북한문학에 표현된 여성의 주체성과 지향」, 『여성학논집』 16, 1999.

박영자,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80년대)』, 성대 정외과 박사, 2004.

박영자,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13,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5.

안중철,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9집, 1998.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 여성들의 삶과 꿈』,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오은경, 「남북한 여성 정체성 탐구: 19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 학회보』 제6권 1호, 2002.

윤미량, 『북한의 여성생활』, 한울, 1991.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18-1, 한국가족학회, 2006.6.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 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9, 1996.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 2002.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 연구』 10, 2006.

이주미, 「북한문학을 통해 본 여성해방의 이상과 실제」, 『한민족문화연구』 제8집, 2001.

이태영, 『북한 여성』, 실천문학사, 1988.

임순희,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17, 평화문제 연구소, 2005.5.

한국여성개발원, 『북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3. 관련 작가 소설 연보

* 이 논문에서 언급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조선문학』과 『조선여성』에 실린 소설 작품만 정리한 것이다.

1) 임순득

『술밭집』, 『조선문학』 1947. 5.

『그날 12월 5일』, 『조선여성』 1948.1.

『10월 밤 이야기』, 『조선여성』, 1949.10.

『딸과 어머니와』, 『문학예술』 1949.12.

『먼저 온 병사』, 『조선여성』, 1950.2.

『녀빨찌산의 수기 - 인민군대 전사인 아들을 위하여』, 『조선여성』, 1950.8.

『조옥희(趙玉姬)』, 『문학예술』 1951.6.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조선여성사, 1955.8. (작품집 - 수록작품: 『들국화』 1947.9. ; 『기우』 1948.1 ; 『손풍금』 1948.3. ; 『4월의 축가』 1948.4. ; 『우정』 1948.12. ; 『누나』 1948.12. 『한 쌍의 사과나무』 1951.8. ; 『한 장의 전보문』 1952.4. ; 『그 이튿날』 1953.7. ; 『안또노브 아저씨와 연회』 1955.3. ; 『평화의 명절』 1955.3. ; 『안도리호』 1955.7)

『어느 한 유가족의 이야기』 『조선문학』 1957.6.

2) 이정숙(李貞淑)

『힘』, 『조선여성』 1948.4.

『어느 맑게 개인 날』, 『조선여성』 1948.10.

『광주리』, 『조선여성』 1949.9.

『보비』, 『문학예술』 1952.11.

『박로인』, 『조선문학』, 1956.9.

- 「선희」, 『조선문학』, 1957.9.
 「진실」, 『조선문학』 1959.8.
 「봄」, 『조선문학』 1960.10.
 『산새들』(중), 조선문학 1961. 12~ 1962.2. 3회 연재
 「바다가에서」, 『조선문학』 1963.3.
 「전진」, 『조선문학』 1964.4.
 『먼 해구에서』(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5.
 「불씨」, 『조선문학』 1969.1.
 「화차 조립장에서」(단) 조선문학 1970.4.
 『투쟁의 노래』(중) 문예출판사, 1972.
 『지평선』(장), 문예출판사, 1975.

3) 강복례

- 「수연이」, 『조선단편집』 2(문예출판사, 1978)에 수록, 1960년작으로 부기되어 있는데, 최초의 발표지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우리 집」 『문학신문』 1964. 4.28.
 「전사의 안해」, 『조선문학』 1966.8.
 「전류는 흐른다」, 『조선문학』 1967.8.
 「전선 길에서」, 『조선문학』 1968.9.
 「공지」, 조선문학, 1970.7.
 「싸움의 나날에」, 『(단편소설집) 포화 속을 뚫고』, 문예출판사, 1972.
 「녀전사」, 조선문학, 1976.5~6.
 「건설장의 새 아침」, 『혁명전위(단편소설집)』, 문예출판사, 1976.
 「신념」, 조선문학, 1977.5.
 「한 대오 속에서」, 조선문학, 1978.3.
 「새벽이슬」, 조선문학, 1978.7.
 「공장의 주인들」, 조선문학, 1979.8.
 「배길」, 『조선문학』, 1981.10.

『녀전사들』(중), 1982.

「넙원」 『(단편소설집) 향도의 태양』, 문예출판사, 1984.

『다시 전선에서』(중), 문예출판사, 1989.

『먼 산촌에서』, 문예출판사, 1992.

「직장장의 하루」, 조선문학 1992.8.

「새로운 전선」, 『조선문학』 1999.4.

4) 김영순

「그해 봄」, 『조선문학』 1972.10.

「첫여름」, 『조선문학』 1973.10.

5) 김련화

「여울물 소리」, 『조선문학』 1982.6.

「단조장의 메아리」, 『조선문학』 1983.12.

「우리 어머니」, 『조선문학』 1984.10.

6) 최순영

「눈보라 멎은 밤」, 『조선문학』 1987.5.

7) 리라순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 2001.3.

「샘은 깊은 곳에서 솟는다」, 『조선문학』 2004.1.

「문수봉 기슭에서」, 『조선문학』 2004.12.

「보금자리」(실화문학), 『조선문학』 2005.5.

8) 최련

「따뜻한 꿈」, 『조선문학』 2002.1.

「바다를 푸르게 하라」, 『조선문학』 2004.2.

Abstract

A Study of Female Identity in Works by North Korean Women Writers

Lee, Sang-kyung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ways in which the state's official policy on women has conflicted with and changed the everyday reality of North Korean women as reflected in works by North Korean women writer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demands that North Korean policy places upon women in each era and female reaction to such demands. Dating from the post-Liberation period, those works capture the progress and euphoria brought to women by institutional liberation in the form of gender equality laws and, at the same time, imply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apply such institutions to daily life in a society still haunted by a strong tradition of patriarchy and feudalism. Works penned by women writers during the reconstruction following the Korean War and the 1960s concern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depreciation of women that unconsciously occurs at the workplace, women's self-depreciation, and bureaucratism. Although the critique of bureaucratism is an important theme in North Korean fiction, these works depict and criticize bureaucratism all the more vividly and trenchantly because the female characters are subordinates while their supervisors are male. As for the 1970s, it is difficult to find private voices of diverse characters in the works of women writers due to the

prevailing atmosphere of North Korean society. As a result, works from this period generally are but official policies and platforms disguised as fiction. Since the 1980s, even works that seem to support official policies on women once again portray the dual nature of life faced by North Korean women, who are expected to attain subjectivity through social activities yet suffer from the remnants of patriarchy. Fiction from this period depicts in various ways the turmoil that women undergo due to a clash between their identities within the family and self-realization in society.

Key words : 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North Korean women writers, *Korean Women*(*Joseon Nyeoseong*: 조선여성), *Korean Literature* (*Joseon Munhak*: 조선문학), gender equality laws, Im Sun-deuk, Ri Jeong-suk, Gang Bong-nye, Ri Ra-sun, Choi Ryun

■ 본 논문은 4월 15일 투고되어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5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